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 MONTHLY MAGAZINE



2014년 5월호

VOL. 431

08 기획특집

공군가족의 님은 꿈

31 아빠! 뭐해?
항공의무

36 꿈을 찾는 인터뷰
조광래 전 국가대표축구팀 감독

42 Pioneers up Above 서알보

54 담벼락 자전거

COVER STORY

공군가족의 님은 꿈

월간 「공군」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공군 준·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군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님은 얼굴만큼이나 인생의 꿈도 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5월호에서 만나 보시죠.





2014년 5월호

VOL. 431

08 기획특집

공군가족의 님은 꿈

31 아빠! 뭐해?
항공의무

36 꿈을 찾는 인터뷰
조광래 전 국가대표축구팀 감독

42 Pioneers up Above 서월보

54 담벼락 자전거



표지(앞) 서봉열 준위 가족 사진 | 김재기 작가
표지(커버스토리) 쌍둥이 중사 형제들 제호디자인 | 일병 김지완 편집 | 일병 김재하
표지(뒤) 서봉열 준위 가족사진

발행일자 2014년 5월 1일(통권 제431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최차규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이형걸 편집감수 중령 이상규, 소령 천명녕
기획·편집 대위 이동혁, 중사 고미숙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May 2014 Volume 431



• 공군IN

공군IN Fitness	6	미세먼지의 습격
Zoom in 태극전사	7	홍명보호 최대의 적
기획특집 1	8	공군가족의 님은 꿈
기획특집 2	16	Space Challenge 2014
포토프레임@AF	20	최차규 대장 공군참모총장 취임
Airforce Monthly	22	4월의 공군소식
공군문화유산답사기	24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수호비
아빠! 뭐해?	31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 정원철 상사
공군은 나의 힘	34	김덕기 서울대 작곡과 교수
꿈을 찾는 인터뷰	36	조광래 前 국가대표축구팀 감독
광고	40	2015학년도 공군사관생도 모집

◦ GLOBAL & INSIGHT

Pioneers up Above	42	서왈보
Air-Power Report	44	프랑스 스네크마 아타 엔진

◦◦ CULTURE 36.5

Hollywood English	46	언피니쉬드 라이프
트렌드가 보인다	48	간절기와 여름 추천 패션
Preview	50	5월의 추천영화 · 문화행사
Air-Supply	51	슈퍼 히어로의 등장

◦◦ OPINION

생각하는 그림	52	돌멩이 수프의 비밀
담벼락	54	자전거
책마을	56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글
유현정
(비타민하우스(주)
광고홍보팀장)



미세먼지의 습격

요즘 주위에서 '미세먼지' 이야기가 흔히 들린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공업화와 산업화의 영향을 받아 사상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국민 모두가 건강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언젠가부터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안내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2013년 8월부터 미세먼지 시범예보를 거쳐 2014년 2월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예방은 필터 기능 마스크로

미세먼지는 일반 마스크를 이용하거나 손이나 코를 막는 단순한 행동만으로 예방할 수 없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인 만큼 황사 마스크와 같은 필터효율이 높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황사 마스크를 착용할 시에도 마스크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바깥 공기 차단과 외출 후 손 씻기는 필수

미세먼지는 당연히 실내보다 실외가 그 빈도가 가장 높다. 최대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밖에 나갈 때에는 필터 기능 마스크를 써야 한다.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눈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외출 후에는 꼭 손을 씻고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가급적 실외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며, 실내 가습을 충분히 해주되, 지나치게 공기가 건조한 경우에만 짧게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실내먼지 걱정된다면 식물도 효과 있다.

실내먼지가 걱정된다면 미세먼지 제거에 좋은 식물을 길러보는 것도 좋다. 성인이나 어린이 크기의 식물을 3~4개 정도 기르면 좋다. 미세먼지 흡수가 뛰어난 식물로는 스킨답서스, 자금우, 인도 고무나무 등이 있다. 청소를 할 때 물뿌리개로 물을 뿌린 뒤에 바닥을 닦는 것도 효과적

이다. 빨래할 때 소금물로 행구는 것도 미세먼지 제거에 도움이 된다.

물을 자주 마셔주자.

물은 인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효과로 물을 자주 마셔 주면 노폐물과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방어체계가 약한 사람일수록 건강에 적신호가 울 수 있으므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최대의 방어이다. 면역력은 우리 몸의 장의 면역력이 70% 이상을 차지하므로 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호흡기에 도움이 되는 프로폴리스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는 폐 염증에 좋은 배와 중금속 배출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해조류, 해독 작용이 있는 마늘,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생강 등의 음식을 섭취해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도라지, 오미자, 맥문동이 들어간 차(청성차)를 마시거나, 모과은행차도 미세먼지에 도움이 된다.

슬기로운 대응으로, 봄철 미세먼지의 습격을 건강하게 극복하자. **AF**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μ m 이하의 입자 물질을 말한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 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 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건강에 위협한 물질로 황사와 비슷한 듯 다른 개념이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나뉘는데, 미세먼지는 질산염과, 암모늄, 황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탄소 화합물, 금속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산부와 태아, 노인, 심폐질환자에게 미세먼지는 치명적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ZOOM IN 태극전사

2014년 브라질월드컵을 앞둔 홍명보호의 최대의 적은 부상이다. 홍명보 A대표팀 감독은 이미 월드컵 최종 엔트리 구상을 90% 이상 마쳤다. 대한축구협회는 30명의 예비엔트리를 5월 9~12일 사이에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해야 한다. 5월 말 이전에 23인의 최종 엔트리가 확정된다. 최종 엔트리에 남은 자리는 단 10%, 이마저도 부상에 대비한 여유다. 지난 1월 브라질·미국 전지훈련에서 부상 선수에 대비한 플랜B를 실험했던 홍 감독의 부상 경계는 월드컵이 시작될 때까지 지속된다.

박주영, 그의 운명은?

홍 감독의 우려대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전방 공격수 박주영(왓포드)이 극비밀리에 귀국해 치료를 받았다. 3월 6일 그리스전을 마친 뒤 무릎 윗 근육을 다친 것으로 알려진 박주영이 또 다른 부상에 발목을 잡힌 것. A대표팀 주치의인 송준섭 박사(서울제이에스병원장)는 브리핑을 통해 “박주영의 부상은 ‘우측 두 번째 발가락 및 발등 봉와직염’이다. 지난 3월 23일 발가락과 발등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면역력이 약해 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흔히 발생하는 피부염이다. 귀국 전 염증 제거를 했으나, 치료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휴식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귀국 후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권했다. 부상 회복에는 2주 정도가 걸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부상 치료 기간이 길지 않다. 브라질월드컵 본선 준비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경미한 부상 소식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던 홍 감독 입장에서는 한 짐을 덜게 됐다. 그러나 부상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경계해야 할 홍명보호의 최대의 적이 분명하다.

경쟁국들은?

홍명보호의 조별리그 상대 중에서는 벨기에가 부상에 신음하고 있다. 벨기에 대표팀의 주포인 크리스티안 벤테케(애스턴빌라)가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지 못한다. 아킬레스건 파열의 중상이다. 전치 6개월의 진단을 받았다. 로멜루 루카쿠(에버턴)와 함께 벨기에의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던 벤테케의 부상에 ‘호화군단’ 벨기에도 공격 옵션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게 됐다. 뒷문도 걱정이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호펜하임에서 뛰던 벨기에 대표팀의 백업 골키퍼 코엔 카스틸스도 4월 8일 정강이뼈 골절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비록 백업 자원이지만 월드컵에서는 주전 골키퍼만큼 백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량은 물론 인성까지 갖춘 백업 골키퍼를 찾기도 쉽지 않다. 마크 빌모츠 벨기에 대표팀 감독이 새롭게 골키퍼를 물색해야 할 처지가 됐다. 벨기에에는 오는 6월 27일 상파울루에서 한국과 브라질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H조 최종전을 갖는다. **AF**





공군 가족의 따뜻한 꿈 1

제8전투비행단 서봉열 준위 가족

“덕분에 가족이 이렇게 정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보네요.” 월간 「공군」을 반갑게 맞아준 서봉열 준위는 잘 다려진 정복을 입고 두 자녀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다. 두 자녀와 함께 제8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 준위는 오는 7월이면 34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 전 교육을 떠난다. 봉사활동 때문에 함께 촬영하지 못한 아내가 생각났는지 촬영내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Special Theme



서 봉 열 준위



서 나 리 중사



서 재 현 중사

대견함, 그리고 책임감

“가족이 한 부대에 근무하면 좋죠?”라는 질문에 서 준위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2006년에 임관한 딸 서나리 중사와 2008년 임관한 서재현 중사가 이듬해 같은 부대로 전속을 오면서부터 셋은 줄곧 한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자녀가 두 명이나 중사로 복무하고 있으니 대견스럽고 든든하지만, 마음 한편엔 항상 조심스럽고 부담이 크다. 항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알게 모르게 서로의 이야기가 부대 동료들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이다.

아버지 생각하며 편견극복

아버지의 군복이 좋아 보여 어렸을 때 몰래 입고 외출한 적도 있다는 서나리 중사는 고등학교 졸업반 때부터 다섯 번이나 시험을 쳐 공군부사관에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 임관하고 자대에 왔을 때, 여군에 대한 시선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위험한 일을 여군 후배에게 잘 시키지 못하는 선배들과, 사무실에 앉아 전화나 받으면서 힘든 일은 병사들을 시켜대지 않겠냐는 편견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했다. 괜히 나 때문에 아버지가 난처해지시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였다. 전산장비정비사인 그녀는 실외작업을 자처했다. 사다리를 올라타고 천장에 랜선을 설치하는 작업은 물론,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제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제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후배나 병사들이 저를 따르겠습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사실 서재현 중사는 패션디자이너 분야로 진출하고 싶었다. 남자로서 어차피 군 입대는 해야 했기에 아버지의 추천에 따라 공군부사관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전역하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서 준위는 아들이 자신을 닮은 공군부사관이 되기를 원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아버지 반만큼 만이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복무한 그는 지난해 중사로 진급했다.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가족

아버지가 준위로 있으니 자녀들을 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받아 봤다고 한다. 하지만 두 자녀들을 직접 만나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요즘은 모든 것이 계량화가 되어 걸으로 드러나요. 근무평정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은 진급하는데 기본이죠. 본인이 노력한 결과라서 더 대견합니다.” 그래도 서재현 중사는 아버지가 있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선배들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세요. 그런 아버지의 진심어린 조언이 저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남매에게 바라는 점

서 준위는 남매가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상관과 후배들로부터 신망 받고, 주변 사람들과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힘들어도 희생해야겠지요. 사실, 제가 가장 아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예요. 늘 부대 일이 핑계였지요. 와이프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애들한테 갖고 싶은 장난감도 못 사주고, 같이 놀이동산도 못가고 그랬다고... 미안한 마음이 있죠. 나리와 재현이는 일과 가족 모두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잘하고 가족도 화목하게...” 목이 메었는지 그는 말끝을 흐렸다.

집에선 아버지, 부대에서는 상관

“일 때문에 혼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모르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하지만 서 준위의 입장은 달랐다. “제가요? 아니에요. 혼난 적 없어요. 혼내면 더 의기소침해질까봐. 본인이 깨닫고 분발할 수 있도록 있는 듯 없는 듯하는 것이 제 역할이죠.” 혼난 사람만 있고 혼난 사람은 없는 이 가족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는 내 마음속의 영웅

서나리 중사는 아버지가 더 이상 부대에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고 했다. “예전에는 일이 핑계였지만 이제는 핑계가 없어요. 이제 엄마께 잘 하셔야죠. 뭐. 그런데 요즘은 엄마가 더 바쁘세요. 오히려 아버지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제 아이도 봐주시고 하셔야죠. 호호호”



그동안 오글거려서 제대로 말해본 적 없었다는 서재현 중사가 누나의 말을 이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자 군인으로서 저희를 키워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에서 34년을 복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제가 아버지의 명예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역하셔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AF**

Special Theme



공군 가족의 님은 꿈 2

항공고 32기 쌍둥이 형제들

2003년 2월 26일. 진주에 위치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당시 공군기술고등학교, 이하 항공고) 32기 졸업식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세 쌍의 쌍둥이 형제들에게 집중됐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태어난 김재용, 김경용 형제, 김동민, 김동구 형제, 정정원, 정수원 형제는 이날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마저 똑같은 공군부사관으로 임관하게 되었다. 이 쌍둥이 형제들은 30년 인생조차도 꼭 닮았다. 올해로 임관 12년차. 항공고 3년을 포함하면 인생의 절반을 공군과 함께한 셈이다. 월간 「공군」을 위해 임관하고 처음으로 여섯 남자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였다.



선택

같은 길
위에 형제



김재용 / 김경용 중사

저희는 외삼촌이 학교 선배였어요. 집에서 좋다고 가라고 했죠. 어릴 때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둘 다 시험을 쳤는데, 한 명이라도 떨어졌으면 둘 다 향과고에 안 갔을 수도 있었어요. 과도 같은 과였고, 임관해서 특기도 기체정비였어요. 고향이 대구인데, 군 생활도 같이 대구에서 시작했죠.



김동민 / 김동구 중사

고향이 진주예요. 고등학교도 진주에 있어서 가기 쉬웠죠.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쌍둥이니까. 집에서 부모님께서 먼저 "이런 학교가 있다더라."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마침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붙은 포스터를 봤죠. 학교홍보를 하러 온 선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때 그 선배가 대학교도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썩 정확한 정보는 아니었네요. 졸업 후 진로가 보장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형제가 함께 시험을 쳤고, 합격을 했습니다.



정정원 / 정수원 중사

어렸지만 그때부터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빨리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향과고가 아니었으면 공고를 가려고 했었죠.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나 할까요? 마침 학교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결국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학교장 직인 받아서 병무청에 서류를 냈습니다.

관계

쌍둥이는
불편해



쌍둥이는 불편해요. 어딜 가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든요. 뭐 지금 월간 「공군」에 나오는 것도 다 그런 것이겠죠. 같이 잘 안 다니려고 해요. 막 서로 경쟁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어차피 크면서 친구를 사귀고, 각자의 친구들과 다니는 시간이 많아졌죠. 여기 사진도 있지만 어릴 때 부모님은 꼭 같은 옷을 입혔어요. 그렇게 안해주면 싸운대냐? 제가 볼 땐 웃만 이렇게 안 입었어도 더 친했을 텐데...



동생 결혼식 날 동생 아내될 분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어요. 저도 그날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제수씨가 다짜고짜 저한테 어딜 자꾸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황당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고, 달긴 달았나 봐요. 나중에 제 아이가 아빠를 헛갈려하지는 않겠죠?



축구 좋아하고, 술(소주: 참이슬, 지역소주) 좋아하고, 주량도 2병. 쌍둥이라서 그런가 형제가 참 달은 데가 많아요. 심지어 이상형도 비슷하죠. '예쁜 여자!' 가끔 타기지 사람들이 혼련 때문에 부대로 파견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뜸 저더러 명단에 없는 사람이 왜 왔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당황스럽죠. 모르는 사람이 반갑다고 툭 치는 경우도 많아요. 쌍둥이라서 헛갈리는 것일텐데, 제가 이해해야죠.



Special Theme



항과고에 지원할 때 3년간 학비와 숙소가 지원된다
고 들었고, 졸업하면 공군부사관으로 복무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7년의 의무복무까지는 잘 몰
랐죠. 남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스무 살이 되면 자유로운 인
생이 시작되잖아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남
들보다 힘든 군인의 생활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
희 형제는 전역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다. 마침 전역
할 시기가 되니까 사회에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취업난에 허
덕이며 저희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쉬움

너무
이른
선택



너무 일찍 진로가 결정되니까. 요즘 웬만하면 다 대학교에 가는데, 그 대학
생활을 못해본 것이 계속 아쉬웠어요. 7년 의무복무만 채우고 나가려고 했
는데 마침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 외삼촌과 부모님은 저희에게 항과고를 추천하
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지 못해요. 중학생은 아직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안 해본 어린 나이에요. 너무 일찍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솔직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한문과 역사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매달 1~2권
씩은 꼭 역사책을 사서 읽어요. 최근에도 고려사를 읽었습니다. 스스로 재미있어서 읽는 것이긴 한데, 군인
이라면 최소한 우리의 역사만큼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조리사 자격증도
딸 계획입니다. 음식점에 갈 때마다 맛있게 만들어져 나오는 요리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가볍게 와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는 식당 하나 차리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

하고
싶은
것



저희도 공군에서 사고 안치고 잘 지냈으면 좋겠죠.
목표라고 말씀드리면 말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정비사요. 가정도 꾸리고...



군 생활 끝까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군인이지만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에 일찍 들어와서
고생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를 찾고 싶어
요.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요. **AF**





Special Theme



어머니라는 한 글자를 쓰니, 많은 생각과 느낌이 교차합니다.
대한민국의 장병이라면, 살아 숨 쉬는 생명이라면 공감합니다.
항상 그립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어머니.
만개한 벚꽃만큼이나 넘치는 사랑으로 자란 저에게
이제는 살랑살랑 떨어지는 꽃잎과 같이 제 어깨에 기대어
쉬어도 좋습니다.
숨 쉬는 나날이 어머니와 함께이고 싶습니다. **AF**

<제17항공통신전대 상병 백명관>

스페이스챌린지 2014 지역예선



Photo Sketch

제36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챌린지 2014 지역예선이 4월 5일부터 전국의 공군 비행단에서 펼쳐졌는데요.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모형항공기와 물로켓대회 현장을 월간 「공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Special Theme





Photo Sketch



AF





제34대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대장 취임

제33·34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이 4월 11일 오후,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제34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최차규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강력한 전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한 항공우주 주력을 건설하고 전투임무 중심의 정예전사를 양성해 『강하고 신뢰받는 정예공군』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공군인 모두는 24시간 작전이 가능하도록 일선불사의 강한 군인정신을 무장한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해 국가와 공군의 발전에 이바지하자.”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총장은 공군사관학교 28기로 임관, 제10전투비행단장,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공군참모차장, 공군작전사령관 등 군내 요직을 역임했으며, 작전, 기획, 전력발전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두루 갖춘 지휘관으로 상하급자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취임사



「강하고 신뢰받는 정예공군」 육성을 당부하며

친애하는 공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조국의 하늘을 수호하기 위해 비행단을 비롯한 산간벽지의 유도탄포대, 방공관계대대에서 묵묵히 영공방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군 전 장병과 군무원 모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 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인은 명예에 의하여 제34대 공군참모총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대통령님의 통수이념과 장관님의 지휘의도를 받들어 조국 영공방위 임무완수와 공군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전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한 항공우주력을 건설하고 전투임무 중심의 정예전사를 양성하여 **「강하고 신뢰받는 정예공군」**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 로켓을 대량 발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핵실험 위협을 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특히 무인기를 이용한 침투를 획책하는 등 비대칭 수단에 의한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발할 것인지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24시간 작전이 가능하도록 점검·보완하고, 장병과 군무원 모두가 확고한 대적관을 확립한 가운데 일선분사의 강한 군인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전적 전투훈련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싸우면 승리하는 ‘전투형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양하고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비행단급 이하 전투부대 지휘관들은 과감한 행정 간소화를 통해 장병과 군무원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강한 훈련은 엄정한 작전기강과 철저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가

운데 임무요원의 완벽한 준비와 안전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문화정착과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14년은 한국형 전투기사업의 체계개발이 착수되고, F-X사업의 기종이 결정되며, 공중급유기 사업을 시작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항공우주전력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향후 40~50년간 운용할 영공방위의 핵심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사업관련 부서는 물론 전 부대 및 기능분야에서는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지’, ‘임무요원 선발을 비롯한 정비체계 및 방호시설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효과적인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공군의 미래를 위한 주요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해 나갑시다.

끝으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뿐만 아니라 장병과 군무원의 높은 자긍심이 중요합니다. 자긍심은 내가 존중과 신뢰를 받을 때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지휘관으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술선수범과 배려를 통해 ‘부대를 내 가정같이’, ‘동료를 내 가족같이’ 여기고 생활함으로써 활기차고 인정 넘치는 병영문화를 창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총장 또한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믿음직한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앞에서 강조한 사항들은 총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공군 전 장병과 군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열과 성을 다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군 전 장병과 군무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AIR FORCE MONTHLY

May, 2014

MONTHLY MAGAZINE VOL.431

www.airforce.mil.kr

공군 각 부대, 식목행사

‘쾌적한 부대환경’ 푸른 꿈 심다



공군은 제69회 식목일을 맞아 부대별로 나무심기 등 식목일 행사를 했다. 공군군수사령부는 대구수목원으로부터 기증받은 매화나무 등 10종류의 묘목 1,000여 그루를 심고, 영내 수목의 가지치기·지지대 정비작업과 함께 주변 낙엽과 고사목을 제거했다. 8전비와 10전비도 부대 내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3여단은 소나무·자작나무 등 총 800여 그루의 나무와 금잔디·금잔화 등 식물 2,500본을 식재하고 덩굴과 낙엽·고사목 제거, 가지치기 등의 수목 정비활동을 했다.



AIR FORCE MONTHLY



작사, '위국조인상' 제막
6·25참전 조종사 이름 새겨

공군작전사령부는 3월 26일 부대를 상징하는 조각상 '위국조인상(爲國鳥人像)' 제막식을 거행했다. 위국조인상은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공군인이라는 의미로 상징물에는 조종사 헬멧 조각을 중심으로 하단에는 '신념의 조인(信念의 鳥人)'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 새겨져 있다. 또 6·25전쟁 당시 출격해 조국의 영공을 수호했던 129명의 참전 조종사들의 이름을 새겨 그들의 업적과 숭고한 군인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해 상징물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공사, 원불교 성무교당 봉불식
"최상의 무형전력 발휘 위해 노력할 것"



공사, 원불교 성무교당을 원불교 청주교당의 도움을 받아 군종 승인 이전인 2005년 11월부터 사관생도의 예회를 운영해 왔으며, 원불교가 군종장교 편입을 승인 받은 2007년 3월 24일 이래 사관학교에 교당이 생긴 것은 공사가 처음이다. 성무교당 박도정 주임교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자 생도들의 마음수양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교당을 열 수 있었다."며,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최상의 무형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종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는 3월 23일 성무교당에서 봉불식을 열었다. 봉불식은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인 법신불 일원상 부처를 봉안하는 행사다. 공군사관학교 성무교당은 318㎡ 규모의 옛 정문 면화실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법당과 사무실, 휴게실 등이 들어



교육사, 2014년도 부대 개방 행사
민·군 화합의 장 마련

공군교육사령부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2014년도 부대 개방 행사를 개최했다. 부대 중심을 가리며 펼쳐진 벚꽃길과 만개한 개나리로 둘러싸인 교육사는 시민들에게 즐거운 여행지를 제공하는 한편, 진주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나라사랑 백일장 대회도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는데, 군악대의 〈작은 음악회〉를 비롯해 먹거리 장터, 도자기 만들기, 장갑차 탑승, 페이스 페인팅, 모의 비행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성공적인 민·군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19전비 159대대, 9만 시간 무사고
팀워크로 이뤄낸 무사고 기록

제19전투비행단 159비행대대가 4월 4일, 9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했다. 159비행대대는 1990년 4월 8일부터 24년 동안 다양한 항공작전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화적 안전관리와 대대원간의 팀워크를 발휘해 5,800여 만km의 비행거리에 해당하는 9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이라는 금자탑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5전비, C-130J 1, 2호기 인수식
수송능력 향상 기대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4월 7일 대형 수송기(C-130J) 1, 2호기 인수식을 가졌다. C-130J 슈퍼 허큘리스는 기존 C-130H 허큘리스를 성능 개량한 것으로, 엔진 효율성과 운항거리가 향상되고, 조종계통이 디지털화되어 C-130H에 비해 조종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C-130J의 도입으로 앞으로 공군은 전평시 인원 및 화물 수송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구호품 전달과 같은 인도주의적 임무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F**



합천 해인사

김영환 장군 팔만대장경 수호공적비



경남 합천에는 1972년 아홉 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 가야산(伽倻山)이 품고 있는 해인사(海印寺)가 있다. 일주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2002년 6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중무원, 해인총림, 대한민국 공군이 뜻을 모아 세운 '김영환 장군 팔만대장경 수호공적비(金英煥 將軍 八萬大藏經 守護功績碑)'가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수호공적비는 공군 마크를 새긴 기단석 위에 오석과 황동석으로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경판을 본뜬 모양에 비문을 새겨 가로로 올려놓았다.

비문의 글머리에는 “여기 화살같이 흐르는 짧은 생애에 불멸의 위업을 남기고 영원히 살아남은 영웅이 있다. 김영환 장군! 그는 1921년 서울 사직동에서 태어나 형인 김정렬 장군과 함께 우리 공군 창설과 함께 그 육성에 신명을 기울이며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명장으로서 면모를 보였으며 6·25 한국전쟁 중에는 탁월한 결단으로 우리 민족의 성보 고려 팔



만대장경판을 포화의 위기에서 구하는 호국호법의 큰 공을 세우고 1954년 3월 5일 34세의 나이로 장렬하게 전사하여 그 귀한 명예를 영원히 남기고 있다.”라고 새겨져 있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보면, 1231년 여름 몽골의 군사들이 압록강을 건너 어느새 고려의 서울 개경까지 쳐들어왔다. 그때 고려 왕조는 최씨의 무인정권 손에 돌아갔다. 고려는 세계 정복을 꿈꾸던 몽골에게 벌벌 떨어야 했다. 이듬해 1월 무인정권은 싸워볼 생각도 못한 채 간신히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도망갈 궁리만 한다. 그래서 마침내 6월에 서울을 강화도로 옮기고 그곳으로 도망을 갔다. 하지만 같이 못간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깊은 산속으로 숨어 지내야 했다. 몽골은 1254년까지 일곱 번이나 쳐들어왔고 육지에 남겨진 백성은 몽골 군사들의 말발굽에 처참히 짓밟혀 죽어갔다. 그리고 몽골 군사들은 1011년부터 1087년까지 무려 76년이나 긴 세월을 거쳐 만든 고려의 보물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거의 불태워버렸다.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가 있던 최씨 무인정권은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몽골 군사들을 물리치려고 불타버린 대장경을 1236년부터 1251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걸려 다시 새겼다. 이것이 바로 해인사 장경판공에 있는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으로 흔히 말하는 ‘팔만대장경’이다.

팔만대장경은 경판이 8만 1,258장이다. 글자 수는 5천2백만 자가 조금 넘는다. 놀라운 사실은 500년 가까이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의 글자 수와 맞먹는다. 한자에 아주 밝은 사람일지라도 하루 8시간씩 설, 추석 등 명절과 공휴일 없이 꼬박 30년을 읽어야 간신히 읽을 수 있는 양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해

인사가 터를 잡고 있는 가야산은 해발 1,430미터다. 팔만대장경의 경판은 가로 길이가 69센티미터인데, 만약 가로로 눕혀 쌓으면 가야산 두 배의 높이보다 더 높은 3,200미터쯤은 되니 놀랍기만 하다. 그리고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보다 훨씬 높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은 6·25 한국전쟁 때 김영환(金英煥, 1921~1954) 장군이 아니었더라면 영영 사라질 뻔했다.

낙동강방어전선에서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고립되자 가야산과 지리산으로 들어가 공비가 된다. 가야산에는 약 900여 명의 공비가 숨어 있었는데 해인사에도 숨어들었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지상공과의 협동작전으로 가야산 공비토벌을 위해 항공으로 공중지원을 수행하고 있었다.

김영환 장군은 그 당시 대령으로 공군 전투조종사들이 목에 머물러인 ‘빨간마후라’를 두르게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전대장으로 제10전투비행전대를 지휘하면서 공중지원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김영환 대령이 가장 염려했던 일은 팔만대장경이 보존돼 있는 해인사의 절간에 숨어서 저항하는 공비들을 공격하다 보면 민족의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잣더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때는 1951년 8월 20일 오전 6시 30분 ‘해인사를 포함한 가야산 일대의 공비소굴을 폭격해 출동 중인 지상군 경찰부대를 긴급 지원하라!’는 출격명령이 내려진다. 네 대로 편성된 편대는 제2번기 강호륜 소령, 3번기 박희동 소령, 4번기 서상순 대위를 비롯 편대장 김영환 대령의 제38호 F-51D 무스탕 전투기를 선두로 사천기지에서 활주로를 박차며 이륙했다. 전투기마다 230킬로그램짜리 폭탄 2발, 로켓탄 6발, 기관총탄



1,800발을 장착하고 편대장은 258킬로그램짜리 네이팜탄까지 장착하여 낙동강 줄기를 따라가다가 함안 상공에서 미군 통제기와 교신하게 된다.

통제기는 편대에게 “가야산 동남쪽으로 길게 뻗은 산줄기 사이로 조그만 냇물이 흐르고 있다. 냇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의 울창한 숲속에 절이 있는 분지가 보일 것이다. 공격목표는 바로 그 절과 그 일대의 숲이다. 무차별 공격하라!”고 목표를 알려 주었다. 그 절은 해인사로 지상군이 사전에 탐지한 정찰 상황에 의하면 공비로 변한 북한군이 약 1개 대대로 오륙백 명이 있었다. 공격 작전에 앞서 김영환 대령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인사 상공에서 급강하했다. 전투기 소리에 놀란 공비들이 해인사에서 뛰쳐나와 숲속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미군 통제기에서 떨어뜨린 공격 표시용 연막탄이 해인사 대적광전(大寂光殿)의 앞마당에서 터지게 해 내뿜는 흰 연기로 공격 신호를 하면서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수 차례 폭격 명령을 보내왔다.

전쟁시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라는 중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대령은 상부의 폭격 명령을 어기고 편대원들에게 리시버로 “각기(各機)는 나의 뒤를 따르되 편대장의 명령 없이는 절대로 폭탄과 로켓포를 사용하지 마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편대원들은 편대장의 명령에 “기총으로 공격하자는 것인가. 그렇다면 폭탄과 로켓탄은 왜 싣고 왔던가. 해인사에 공비가 우글대고 있는데도 공격하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의아스럽게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편대장 김영환 대령은 끝내 폭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해인사를 폭격해 공비를 섬멸할 줄 알았던 경찰부대는 보다 못해 교신으로 “귀 편대는 무슨 이유로 폭격을 하지 않는가. 작전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그런데도 편대장 김영환 대령은 폭격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만약 김영환 대령이 미군 통제기의 수 차례 폭격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네이팜탄을 해인사에 떨어뜨린다면 불바다가 되어 민족의 문화유산 팔만대장경 경판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였다. 하지만 김영환 대령은 거듭 편대원들에게 “해인사를 절대 폭격하지 마라! 이유는 기지에 돌아가면 설명하겠다!”고 명령을 내린 다음 해인사 상공을 몇 바퀴 선회한 뒤에 절 뒷산 너머로 폭탄과 로켓탄을 투하하고 기지로 귀환했다.

그날 저녁 상황실에서 김영환 대령은 경찰부대 간부들을 상대로 폭격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이유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절이 국가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공비 몇 놈보다는 해인사가 더 중요하다. 해인사는 절 자체가 국보일 뿐만 아니라 그 절 안에는 우리 민족의 값진 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보존되어 있다. 공비 몇을 처치하기 위해 700년 이상 이어온 우리 민족의 보물을 잣대미로 만들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 말에 해인사에 숨어있던 공비들에게 폭격을 하지 않고 영동한 장소에 폭격을 했다고 항의하던 경찰간부들은 코가 납작해져 돌아갔다.

그 당시 해인사 폭격명령은 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군 작전 사령부에서 내렸다. 하지만 김영환 대령은 명령을 어겨 미군 작전사령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미 공군의 조사관 월슨 소령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김영환 대령에게 왜 명령을 어겼는지 따져 물었다. 김영환 대령은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공비 몇백 명을 죽인다고 해서 전쟁의 승패가 나지도 않는데, 그런 공비와 대장경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세계 제2차대전 때도 문화재가 많은 프랑스 파리나 일본 교토를 폭격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또 김영환 대령은 당당한 태도로 미군 조사관에게 “영국의 문호(文豪)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다 주어도 우리나라의 팔만대장경과는 바꿀 수 없는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미군 조사관은 벌떡 일어나 손을 들어 경례를 올리면서 “김영환 대령님 같은 훌륭한 상관을 모신 한국의 공군 장병들이 부럽습니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문으로는 그런 보고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노발대발하면서 “김영환을 총살시켜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그 당시 공군참모총장이기도 하면서 친형이던 김정렬 장군이 사정을 잘 말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휴전 후 김영환 대령은 1953년 12월 5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으로 전투조종사 양성에 주력했다. 1954년 1월 28일에는 준장으로 진급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군 창설 7인 위원 중 막내로 활약했으며 전투조종사로서는 처음으로 빨간 마후라를 목에 돌렸던 멋쟁이, 생텍쥐페리 같은 문학 작가가 되었을지도 모를 문학청년이었던가? 김영환 장군은 1954년 3월 5일 사천기지에서 강릉기지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창설기념식 행사에 가기 위해 F-51D 무스탕으로 경남 사천기지에서 이륙해 비행 중 기상악화로 묵호 상공에서 실종되었다. 그 후 59년만의 일로 때늦기는 했지만 정부는 2010년 8월에 팔만대장경을 지킨 김영환 장군에게 공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호국하온 민족혼인 고려팔만 대장경판/
국난중에 호국하고 재난에도 호민했네/
6·25의 위기맞아 김장군이 지켰으니/
호국장군 아깝게도 서른네살 젊은나이/
순국으로 산화하니 짧은시간 굶게살다/
가야산이 변함없듯 동해바다 고갈되고/
백두산이 마멸되나 위대하신 그이름은/
이나라와 함께하여 영원토록 빛나리라/

김영환 장군 팔만대장경 수호공적비에 새겨져 있는 추모시다.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김영환 장군은 ‘백두산이 마멸(磨滅)되나 위대하신 그 이름은’ 즉 백두산이 닳고 달아 없어져도 그 이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이다. **AF**



피스아이

2014 **5**
M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맥스선더 훈련

2014 **5**
M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공군IN
아빠! 뭐해?



구성
편집실

사진
8급 김선우

공군가족 자긍심 함양 본격 임무체험 버라이어티

아빠!
뭐해?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면? 느낌 아니까.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 정원철 상사, 딸 헤민

조종사가 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어딜까요? 네. 정답입니다! 바로 우리 아빠가 근무하고 계시는 공군항공우주원의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몸이 많이 힘들겠죠? 저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꽤 힘들거든요. 오늘은 아빠랑 조종사들이 받는다는 공중환경적응훈련을 해 보기로 했어요. 이름도 참 복잡하네. (*^^*) 아빠~ 헤민이 왔어요. **아빠! 뭐해?**



나도 조종사처럼

「아빠」 헤민아. 여기서 훈련을 받으려면 조종복을 입어야 해요. 한번 입어볼까?

「헤민」 입는 방법이 특이하네요. 먼저 다리를 집어넣고, 팔을 넣고.

「아빠」 와, 헤민이 조종복이 딱 맞네.

「헤민」 어? 태극기가 붙어 있네. 히히.

과학은 어려워요...

「헤민」 이게 조종사 마스크예요?

「아빠」 맞아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한데, 이 마스크에 연결된 호스에서 산소가 나와서 조종사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지.

「헤민」 하늘 높이 올라가면 왜 산소가 부족해요?

「아빠」 응. 그것은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낮기 때문인데, 중력 때문이야. 그럼 높은 고도에서 공기의 부피가 커지는데 이건 보일의 법칙이라고...

「헤민」 응?



몸이 무거워지는 훈련?

「아빠」 TV 같은 데서 본 적 있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가속도 내성강화 훈련장비예요.

「헤민」 봤어요. 이거 타면 얼굴 피부가 늘어지고, 늘어 보이게 되는 기계 맞죠?

「아빠」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비행기에서 급격한 기동을 하면 몸이 엄청나게 무거운 느낌을 받는데, 조종사들은 그것을 견뎌야 하지.

「헤민」 왜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와요. 저도 좀 늘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우주선같은 훈련장비

「아빠」 최신형 비행착각 훈련 장비야. 한번 타 볼래?

「헤민」 신기해요. 꼭 우주선 같아요.

「아빠」 우리 몸의 감각은 어느 때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울어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마치 그것이 균형인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 그런데 비행기의 좁은 조종석에서는 그런 착각이 아주 위험해!

「헤민」 아~ 맞아요. 우리 반에도 꼭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하는 남자애들이 있대니까요. 아주 위험해!



비상사태, 비상사태! 탈출하라! Fire!

「아빠」 헤민아. 이게 아빠가 맡고 있는 비상탈출 훈련 장비예요.

「헤민」 비상탈출이요? 꼭 놀이기구 같이 생겼는데요?

「아빠」 이런. 아니야, 헤민아.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조종사들은 하늘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탈출해야만 하는 비상상황이 닥칠 수도 있거든.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탈출하는 절차와 자세를 훈련을 통해 미리 경험해보는 것이지요.

「헤민」 아. 의자가 하늘까지 날아갈 것 같아요.

「아빠」 아빠가 한번 보여줄까? 헤민아, 아빠 이거 타고 먼저 집까지 날아가 있을게요~



2014년 4월 4일 금요일									
월요일 시간		시		분		월요일 시간		시	
오	늘	아	빠	랑	훈	련	센	터	
에		다	너	왔	다.	우	리	아	
빠	는	조	종	사	를		도	와	주
는		고	관	이	다.	아	빠	일	
은		경	험	하	니	까	신	기	했
다.		비	상	탈	출	기	와	저	압
실	과	가	속	도	장	비	도		
타		봤	다.		아	빠	가	자	랑
스	러	웠	다.		그	리	고	다	음
에		또		오	고	실	다.		
선생님/부모님 말씀									



촬영에 협조해 주신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 장병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통과 배려로 최고의 하모니를 이끄는 카리스마 지휘자

김덕기 교수



관악산 자락에 자리잡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작은 연구실. 그랜드피아노가 놓여 있는 그곳에서 김덕기 교수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국내 유수의 교향악단을 비롯해 동경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그리스 데살로니키 국립교향악단에서 지휘자를 역임하고, ‘베르테르’, ‘아이다’, ‘나비부인’ 등 국내 오페라 공연의 지휘자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덕기 교수가 1970년대 말 근무했던 공군 군악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작곡과 김덕기 교수입니다. 저는 1976년도 4월에 4차, 그러니까 공군병 268기로 입대했습니다. 당시 복무기간은 36개월이었는데 나중에 35개월로 줄어서 1979년 3월에 전역했지요. 그 때 대방동에 있던 공군본부 군악대 악보계에서 편곡병을 맡았었습니다.

뭐 부끄럽지만 그 때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군대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남자가 군대는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작곡가였는데, 1948년에 육군 장교로 임관해 육군본



부 군악대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6·25에도 참전한 군인이셨습니다. 1959년에 KBS 방송국이 처음 생겼는데 거기 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맡아 '경복궁 타령', '신고산 타령', '방아타령', '울산아가씨' 같은 창과 민요들을 관현악이나 합창으로 편곡하고, '대춘향전' 같은 뮤지컬을 작곡한 분이셨어요. 아, 당시 유행가였는데 '잘살아보세' 들어보셨죠?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이라고 하면 아시겠네요.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집에 LP판이 많았습니다. 악보도 많았고요. 그런데 저는 오페라나 발레 같은 극장 음악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오페라도 오케스트라를 잘 다뤄야 하거든요. 시각의 청각화. 책도 희곡을 찾았죠. 대학에 가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South Organ College와 Ohio Northern University에서 독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밀라노 유학을 떠난 것이죠.

군악병은 그때도 악기별로 선발했어요. 그 때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었는데, 작곡을 할 줄 아니까 편곡병으로 선발되었죠. 군악 공연 때에는 팀파니 같은 타악기를 맡기도 했습니다. 사실 작곡은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이 잘하는 일인데요. 악기를 알아야 악기에 맞게 악보를 쓸 수 있거든요. 악기마다 음역도 다르기 때문에 타고난 예술적 감각뿐만 아니라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던 미(美) 8군 파티에서 우리 군악대 5인조, 8인조 캄보밴드가 종종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미군들도 유행곡을 원하는 거예요. 그때 시카고 밴드 같은 노래가 유명했죠.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미국 노래가 들어와서 레코드판은 있는데 악보가 없었죠. 제가 그걸 듣고 역으로 악보를 그렸어요. 우리 편성에 맞게 악보를 편곡해 주면, 캄보밴드들이 가서 연주 많이 했죠. 작곡가들은 들으면 어떤 악기가 나오는지 들려요. 그걸 듣고 적는대요, 잘 했으니까요.

여담이지만 옛날에도 군악대의 군기는 엄했어요. 군악대나 의장대는 흐트러진 것이 보이게 되면, 전 군이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신경을 쓰기는 써야 하죠. 그때도 군대에 몽둥이질이 공식적으로는 다 없어졌을 때예요. 그런데 어떤 선임들은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한번은 상부에서 사열을 왔는데, 바지를 내려 허벅지에 매 맞은 자국이 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깨끗하죠. 거기는 안 맞았으니까. 그런데 그 분이 갑자기 병사들이 군기가 빠졌네 하면서 똑같이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더라고요. 카~

아. 예전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은 여문관 합창단이에요. 사무실에서 타자기 같은 행정사무를 보는 여성분들이었는데, 평소에는 업무하다가 점심시간 같은 때에 밥 빨리 먹고 나서 30~40분 합창 연습을 했죠. 열심히 잘 해주었어요. 국군의 날 28주년 공연도 하고, 위문공연도 종종 다녔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한번은 부대에 동두천여성 고적대 학생들이 왔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고적대가 여학교에 몇 개 있었죠. 우리 군악병들이 그 여학생들 가르쳐 준답시고 뒤에서 안고 뭐 그랬던 일이 생각나네요. 아쉽게도 같이 공연한 적은 없었어요.

2000년인가요? 김대중 前 대통령께서 순안공향에 내렸을 때요. 그 장면을 TV로 봤는데, 뒤에서 팡파르가 나오는데 북한 군악대 실력이 보통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 내는 테크닉이 아주 뛰어났어요. 북한은 복무기간이 기니까 당연하죠. 우리로 치면 중사, 상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레벨 아니겠어요? 우리는 병사들 해봐야 2년이 잦아요. 미국 군악대도 잘하죠. 직업 군인이니까. 영국 군위병 군악대는 판도 내서 판다고 해요.

제가 군대 갔을 당시에 육·해·공군 군악대에 대한 소문이 있었는데요. 특히 해군 군악대가 실력이 좋아서 배울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선호했죠. 간부들 대부분이 직접 행사에 참가했고, 실제로 교육대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우리 공군군악대에도 뜻있는 교향악단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마스터클래스 같은 것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군악대원들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마 공군군악대 인기도 높아져서 좋은 자질의 인재들이 몰릴 거예요. 보통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한 선생님에게만 배우거든요? 자기가 배우던 스승 이외의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꽤 즐거운 일이죠. 군악대 발전을 위해 뜻 있는 사람을 모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제가 군대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자신감과 완벽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오만함으로 보일 수 있고, "나는 완벽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군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났고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배우는 곳. 그곳이 바로 군대가 아닐까요. **AF**



2014 브라질월드컵 특별기획

꿈을 찾는 인터뷰

INTERVIEW

“힘들 때가 행복다.
단디하재!”

조광래 축구재단 대표

조광래 감독



워간공군!
조광래
단디하재!

아제 얼마 뒤 6월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4 브라질 월드컵의 화려한 막이 열립니다.
범국민적 월드컵 열기에 힘입어 이번 호 월간「공군」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셨던 조광래 감독님을 만나봤습니다.

AF 조광래 감독님 안녕하세요. 공군 장병들과 월간「공군」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광래 감독 공군 장병 및 월간「공군」독자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 출신으로 우리 지역에 위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재능기부 차원으로 어린이축구교실을 개최하였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대한민국 공군의 후예들은 다르더라고요. 하하.

AF 그렇군요. 진주중학교와 진주고등학교는 지역에서 명문 학교인데요.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 하셨다고요?

조광래 감독 네. 중·고등학교를 필기시험 전형으로 입학 했으니 공부를 못했다고 하면 수재 소리를 들었던 저희 동문들께 야단을 맞겠지요(농담). 운동선수들에게 공부는 대단히 중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체력은 혼자서 단련할 수도 있지만 학문은 배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는 선수나 어린이들에게 늘 '축구도 잘하는 선수'가 돼라고 강조합니다.

컴퓨터 링커, 초창기 프로축구 최고의 인기스타

AF 조 감독님의 현역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32년만에 본선 진출에 성공했던 1986년에는 멕시코 월드컵에 참가하셨었죠?

조광래 감독 네. 당시 언론은 대한민국 축구 100년사에 가장 뛰어난 베스트 선수 구성이라고들 했었어요. 저에게도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우리 선수 모두가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뛰었었죠. 비록 16강 진출은 못했지만 지금 후배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주눅 들지 않고 선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를 듣고 있으니 그만큼 자부심도 느낍니다.

AF 1986년 아시안게임. 사우디아와의 결승전에서 조광래 감독님의 선제골! 정말 대단하셨더라고요.

조광래 감독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축구의 맹주를 확인하고자 하는 각국의 명예가 걸린 아시아월드컵이라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성을 가진 대회입니다. 우리와 라이벌인 일본을 비롯해 북

한, 중국 그리고 중동의 강국들이 모두 출전했었죠. 그러한 큰 대회 결승골을 넣었으니 대한민국 국민의 찬사는 물론 참가국 팬들에게도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했겠죠? 여담이지만 특히 우리 동료 선수들에게 특히 고마워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아시안게임 우승이면 참가선수들은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하하.

AF IT 강국답게 별명이 '컴퓨터 링커' 라고 하세요. 프로축구의 원년 1983년, 최고의 인기 선수셨죠?

조광래 감독 사실 그 해에 제 나이가 29세로 선수로 치면 노장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축구 깊이를 더 알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라운드에서 뛰는 22명의 선수와 관중석과 팬들의 욕구를 모두 읽을 수 있었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개인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라운드에서 상대보다 한 발 더 뛰고자 악착같이 노력했고, 그 결과로 원년 프로 무대에서 인정을 받아 최고인기선수가 되었는데 사실 저보다 훌륭한 선수도 많았어요. 기자들의 관심과 팬들의 사랑이 과분했던 덕분이지요.

AF 조 감독님은 지도자로서도 많은 팬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특히 '만화축구'에 대한 향수를 가진 팬들이 많더라고요.

조광래 감독 그런데 사실, 제가 직접 만화축구라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음. 우선 만화라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꿈과 이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재밌는 축구, 즐거운 축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선수들 스스로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혁신 마인드를 갖고 '지능축구', '빠른 공수 전환', '세밀한 패스', '치밀한 압박' 등 빠른 판단과 빠른 움직임으로 몇 단계 높은 플레이를 하는 것이지요. 즐거운 축구가 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경기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꼭 만화축구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플레이가 대한민국 축구의 사명감이자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선수들의 노력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부도 축구도 잘하는 선수가 되어야

AF 조 감독님께서서는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 이후, 조광래 축구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줄곧 진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교실 운영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조광래 감독 축구 철학이 제 인생철학이고 전부입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미친다는 것이죠. 미친다는 것은 열정과 노력 승부근성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지도자로서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코칭 중에 하나가 '좋은 습관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축구선수로서 좋은 플레이의 습관과 효율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처음 축구를 배울 때이니까요, 당연히 우리 어린이축구가 중요하겠지요?

AF 축구 선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체력과 축구 실력 외에 어떤 덕목을 강조하십니까?

조광래 감독 역시 올바른 인성함양이겠지요. 현대의 교육과 학습은 다재다능한 인재상을 추구하는 만큼 우리 어린이들이나 선수들에게도 공부는 물론 '축구도 잘하는' 올바른 인성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저는 진주는 물론, 전국 어디서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교실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성원에 보답할 것이고요. 또 재단에서는 축구발전과 사회공헌 등 목적사업을 정직하게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축구를 사랑한 축구인

AF 감독님은 누가 보더라도 축구 천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조광래 감독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천재 보

다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축구에서도 게으른 천재 선수의 조기 퇴진 사례와 부단한 노력과 선수의 성공사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천재든 둔재든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AF 그렇군요. 조광래 감독님. 감독님께서서는 어떤 감독, 또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조광래 감독 하하하. 당연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야겠지요. 때로는 저를 축구계의 야당이라고들 해요. 하지만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서로가 의논하고 협의하여 축구 발전을 앞당기자는 충정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축구를 사랑한 축구인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F 올해에는 2014 브라질 월드컵과 2014 아시안게임이 동시에 열리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광래 감독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선수들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맡은 포지션을 잘 해낸다면 아마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축구팬들을 포함해 국민여러분들의 신뢰와 열화와 같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AF 끝으로, 조광래 감독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군 장병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광래 감독 네. 축구클리닉을 하면서 우리 공군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마치 제가 공군 출신인 것처럼 친근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남다른 배려와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공군 지휘관분들께도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보내드리며, 저희 조광래 축구교실도 단디 단디 하겠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고 즐거운 병영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공군 장병 모든 분들께 건강과 영광이 무한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에 응해 주신 조광래 감독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AF**



제 1 회

하늘사랑 문학상

대한민국 공군, 공군역사재단 주최

기간

14.03.01.

14.08.31.

작품 영역

2014년 8월 31일 까지

주최 : 공군, 공군역사재단
대상 : 국민 누구나 (장병 및 군무원 포함, 기성작가 제외)
소재 : 공군, 하늘, 우주, 공군창군 초기역사
제출 : 인터넷 메일 (skylove@airforce.mil.kr)
문의 : 우편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9 홍보과)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홍보과 (042-552-6933)

하늘사랑문학상 작품공모

시상 내역 및 인원

최우수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3명 (부문별 1명)
우수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3명 (부문별 1명)
장려 : 상장 및 상금 50만원, 6명 (부문별 2명)

공모 부문 및 출품기준

시 : 3편 이상 (100행 이상 장시 1편도 가능)
수필 : 2편 이상 (200자 원고지 15~20매)
단편소설 : 1편 이상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공군본부에 귀속되며, 표절 또는 이전 발표작인 경우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친구나 장소를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대한민국 공군(Republic Of Korea Air Force)



공군사관학교 최영재 생도의 즐거운 외출

하이라이트 ▼

자랑스러운
나의신택!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사관학교에서 꿈을 향해
도전해 보십시오!



2015학년도 (67기)
공군사관생도 모집

원서접수기간 : 2014년 6월 30일(월)~7월13일(일)
1차시험 : 2014년 8월 2일(토)
원서접수 : www.afa.ac.kr | www.uwayapply.com
입시문의 : 0431 290-5504, 290-6067



최영재 생도

어제 14:30, 청주시내

후배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설렘~.





최영재

홀

친구찾기



최영재 생도

어제 15:00, 청주외고

후배님들 반가워요~♥



지구영웅

기념촬영을 위해 도로를 통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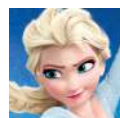
국민동생

오빠! 멋있어요~



소서노

저 오빠, 왠지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걸!



얼음공주

이거 좀 봐봐. 어학우수자 전형도 있어.



국악소녀

아니라오~ 아니라오~ 다 되는 건 아니라오~
1차 시험 합격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오. 얼썬!



외고생고생

오! 안경 써도 갈 수 있다고?



대박사건

어머! 대박대박 대박사건. 시력 기준이 어케됨?



최영재 생도

일단 www.afa.ac.kr에 들어가봐. 입시에
대한 원하는 정보가 있을 거야.



공군사관학교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



⑪ 舌 咄 可 咄 咄 咄

서예 대회



കാമം ഹിമാമുഖേന നയിതം ക്ഷമപ്രദം .

서귀포 지역내의 카이스트 동아리 소개

በሰላም ስላገኛለን ለጥቅምታችን ምስጋና ያሳውቃለን።

— କି ଯିବୁନି — ଓ ଲୋ — ମୁଁ

「카이스트 재능기부 아카데미 커리큘럼」 —

중국 항공계에 한국 남아의 기명을
토했다. 서열보

서알보가 처음 비행기를 본 것은 1913년 경성이었던 듯싶다. 유동열과 함께 독립군 기지 설립 군자금을 위해, 단신으로 그는 국내에 들어온다. 우연히 비행기 비행시범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성으로 간 것이다. 1913년 8월 29일, 용산 일본군 사령부에서 나라하라 신지(奈良原三次)의 비행시범이 있었다. 이를 목격한 서알보는 비행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군자금을 확보한 서알보는 북경으로 돌아간다. 유동열과 함께 활동하다가 그는 풍옥상(馮玉祥) 군벌의 중국군 장교가 된다. 비행사의 꿈이 실현된 것은 1919년 봄에 남원 항공학교에 입학하여 1920년 5월에 졸업하고 나서이다. 그는 풍옥상 군벌 휘하의 항공대를 만들어 활동하게 된다.

서와보비행사의부고를알리는기사:

《동아일보》 1926년 5월 30일

후퇴하자 항공대도 장거리 근처로 이동한다. 서월보가 최웅덕을 만난 것은 1920년이고 권기옥을 만난 것은 1925년이다. 서월보 일행은 장가구에서 지내던 중, 이탈리아제 비행기의 시험비행 도중 추락하여 숨지고 말았다. 서월보는 1886년 평안도 출신으로 민족의식이 대단히 강했다. 1909년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지속하며 풍운아처럼 살았다. 시험비행을 지켜 보던 권기옥 비행사가 그의 시신을 수습했다.

최용덕은 그를, “중국 항공계에서도 경이적 존재였으며, 조국의 광복과 중국 항공 발전을 위하여 한국 남아의 기업을 토하였다.”¹⁾라고 평가하였다. 6·25전쟁이 끝난 직후 제2대 공군참모총장 최용덕은 1954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서월보 장군을 비롯, 중국 인사들로부터 많은 동정과 격려를 받았고 직접 초대발아 위로와 지도를 베풀어...그후 장군은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 중국 국토 통일을 위하여 실전에 참가하는 등 공군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활약하던 도중 불행히도...”²⁾라며 서월보를 잊지 못하고 있다.

서월보가 40살의 나이로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숨졌지만 그 정신은 후배 비행사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짧은 삶으로 마감한 불행한 독립운동가들은 수없이 많다. 그들의 상처, 애환, 못다한 꿈을 느끼는 데 그리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듯싶다.

1) 카타르의 석유 수입이 1951년 1억 4천만 달러에서 1952년 1억 5천만 달러로 증가한 반면, 파나마의 수입은 1951년 1억 4천만 달러에서 1952년 1억 3천만 달러로 감소했다.

2) 『히틀러의 개척자』, 최용덕, 고교보부 정호갑식 1956.

작가의 말

상처의 역사, 치유의 역사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어떤 관점에서는 상처의 역사이다. 상처의 역사를 이제는 치유의 역사로 바꿔야 할 때가 지나도 한 참 지났다. 항공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려는 시도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필자가 처음 부족한 능력이나마 이 역사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고국을 위해 싸웠던 항공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위령제를 올리는 셈이었다. 그들 이름 석자를 우리가 기억해주는 것, 그들의 험난했던 고난의 흔적을 찾으려는 것도 모두 치유의 역사를 위함이다. 나라를 빼앗겨 비릇된 우리끼리의 분열, 증오, 적개심, 비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할 바가 아닌가. 항공독립운동가들의 ‘비행기’는 그래서 대단히 상징적이다.

부족한 책들을 몇 권 내는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흘렀다. 처음엔 애국심, 항공전력 강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강조해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주제들을 뛰어넘어 다시 ‘사람’이 눈에,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물관이나 역사관에 진열된 유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독립운동, 애국심 너머 그 유품의 주인공의 삶, 상처, 기쁨 등 잊혀진 애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역사적 ‘법통’과 역사적 ‘먹통’

항공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한 시초는 크게 네, 다섯 가지 정도가 된다. 미국에서 전개한 독립군 비행학교 설립과 비행사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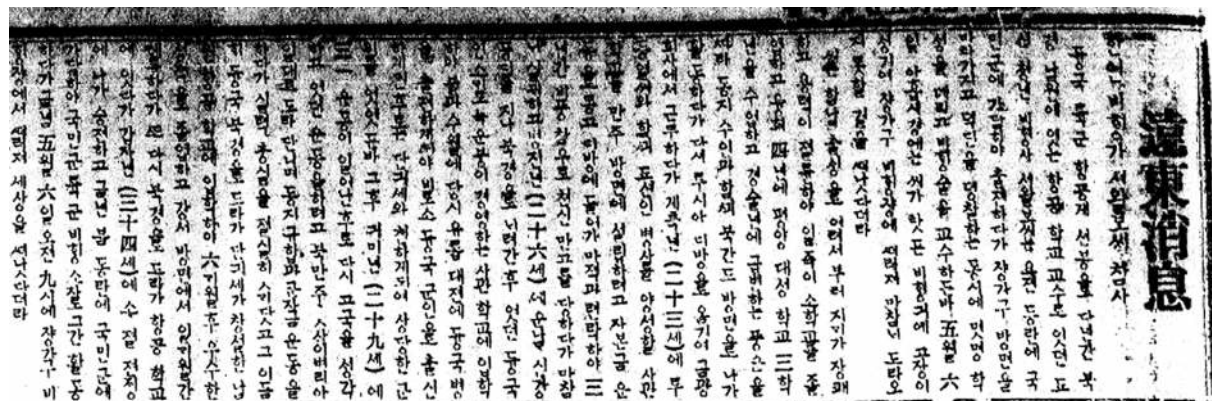


“ 중국의 통일문제가 우리나라의 독립전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우리는 중국 통일을 위하여 이역창공에서 맹렬히 활약하였고, 그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우리 항공인들은 동아의 침략자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는 데 큰 공헌을 세웠던 것이다. ”

최용덕, 「중국에서 활약하던 우리 조인들」, 공군참모부장 시절, 1951년

성 시도는 1921년 막을 내린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별개로 무장독립운동가들의 항공을 통한 독립운동, 일본에서 비행술을 배운 자들 중 1920년대에는 안창남 같이 과학기술 운동을 주장하며, 뒤늦게 중국으로 망명, 독립군 비행사들을 양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1930년대는 일본 다치가와(立川)의 일본비행학교를 나와 중국으로 망명, 중화민국 항공대에서 중일전쟁을 수행한 전상국 등 여러 명이 그들이다. 또한 상해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아 비행술을 배워 독립운동을 하려던 김공집, 권기옥, 장성철 등이 있다.

이렇게 그 기원을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항공독립운동이지만, 그 목적은 하나, 조국의 독립이었다. 이러한 전체 항공독립운동의 흐름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운운하며 임시정부와 연계된 미주의 윌로스 비행학교의 설립 운동에만 그 기원을 둔다면 ‘역사적 법통’이 ‘역사적 먹통’이 되어 버린다. 또한 동시발발로 일어난 전체 항공독립운동의 흐름을 왜곡시킬 위험이 너무도 크다. 194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이 서명한 선포문 말미에는 “...국내외 운동단체 상호 간의 통일적 협동전선의 조직적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임시정부의 3년 계획을 모조리 실시함에 필요한 행동을 각계 동포가 진심, 갈력하여 본 정부의 소신을 실제로 드러나게 함에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어 각설한다. AF



서술보의 죽음과 그의 활약상을 소개한 기사. 《신한민보》 1926년 7월 22일



글 · 사진 제공
콩디담(블로거,
'콩디담의
다람쥐우리'
운영)

AIR-POWER REPORT

프랑스 최초의 자국산 제트 엔진 아타(ATAR)

그 성능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겨져 있지만, 아타(ATAR) 엔진이 오늘날까지 프랑스가 만들어낸 제트 엔진 중에서 가장 성공작이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축류 압축식 터보제트 엔진은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개발해 실제로 운용했던 BMW 003을 바탕으로 추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프랑스가 개발해낸 많은 항공기에 탑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트엔진 산업의 기반을 확립하는데도 크게 공헌했다.



독일 출신의 외스트리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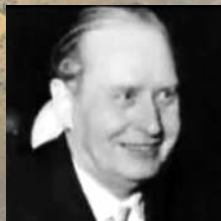
나치 독일 치하에서 BMW 003 제트 엔진의 개발을 주도했던 헤르만 외스트리히(Hermann Östrich : 1903~1972)와 그가 이끄는 개발팀은 독일의 패색이 나날이 짙어가던 1945년 2월에 BMW 003의 기술자료와 함께 마그데부르크 인근의 슈타스푸르트(Stassfurt) 마을에서 연합군 측에 투항했다. 이때 피난처에 있던 암염 광산 지하에 만들어진 공장도 함께 접수되었는데, 이 갱도는 나치가 원폭 개발 용도로 쓰기 위한 우라늄을 저장하는 은닉처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1945년 4월 12일, 슈타스푸르트 마을은 미 육군에 의해 포위되었고 헤르만 외스트리히는 그 전날 대량의 문서를 묘지에 파묻어 은닉했다. 다음날 10명의 프렛&휘트니사의 기술자로 구성된 팀이 도착하자 그는 숨겨둔 자료를 그들에게 전달했다. 미군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제트 엔진의 생산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고, 이윽고 소련군이 진격해오자 미군은 공장의 생산 설비를 전부 반출하는 동시에 옮기지 못하는 설비는 모두 폭파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여주었다.

아타(ATAR) 출범

외스트리히는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의 주임기사 로이 페덴 경(Sir. Roy Fedden)의 요청에 의해 도버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옮겨진다. 이곳에서 그는 더글러스 C-54급의 4발 수송기에 필요한 신형 터보프롭 엔진의 설계에 종사했다. 한편, 프랑스군은 종전 직후 자신들의 점령지에서 여러 대의 BMW 003 엔진을 손에 넣었는데, 이를 조사해본 결과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는 엔진 설계 프로젝트를 위해 정보기관을 통해 비밀리에 외스트리히에게 손을 내밀었다.

프랑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외스트리히는 1945년 9월, 프랑스 점령지 리켄바흐(Rickenbach)에 있던 도르니어 공장에 생산 설비를 차렸다. 여기에 과거 BMW의 기술자들과 다른 독일 공장의 엔지니어들이 가세했다. 200여 명이 모인 이 그룹은 “아틀리에 테고닉 아에로나피끄 리켄바흐”(Atelier Technique Aéronautique Rickenbach : 리켄바흐 항공 기술 작업소), 약자로 줄여서 아타(ATAR)라고 이름 지어졌다. 아타의 임무는 예전 BMW의 설계에는 없던 독립되고 새로운 엔진의 개발이었으며, BMW보다 더 높은 출력과 성능이 목표였다.



ATAR 엔진의 대표적인 수혜 기종인 다쏘 미라주(Dassault Mirage) 전투기와 개발주임 헤르만 외스트리히



ATAR 엔진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했던 다쏘 미스텔(Dassault Mystere) 전투기



다쏘 미라주 III (Dassault Mirage III)

✦ 초기형 모델, ATAR 101

1945년 10월, 아타 개발팀은 ATAR 101(모델 R.101)의 예비 설계를 완료했다. 프랑스 본국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ATAR 101의 청사진과 설계도는 실물 제작을 위해 스네크마(SNECMA) 사에 보내졌다.

첫 번째 엔진은 조립에 조금 시간이 걸렸다. 완성된 1호 엔진이 운전을 시작한 것은 1948년 3월 26일이었다. 개발진들은 항공 역학적 특성 연구와 압축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내구성을 높이고자 터빈을 강철로 만든 부품으로 대체시켰다. 1950년 1월, ATAR 101은 1000시간의 운전시간을 넘기며 26,490 N(5,955 lbf)의 추력을 발휘했다. 이것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다. 이에 비해 BMW 003의 추력은 ATAR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800 N(1,760 lbf)였다.

✦ 그칠 줄 모르는 진보

ATAR 101B는 초기 프로토타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류 날개가 추가되었고, 12월 5일 다쏘 우라강(Dassault Ouragan) 전투기에 탑재되어 첫 비행 시험을 개시했다. 이후 개발을 거듭한 엔진은 ATAR 101G 모델이 46,110 N(10,365 lbf)의 추력을 돌파했다. 이 엔진은 신예기 슈퍼 미스텔(Dassault Super Mystere)에 원래 달려있던 영국제 롤스-로이스 에이븐(Avon) 대신 장착해 1955년 3월 2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때부터 ATAR 엔진은 대량으로 발주되었는데, 1957년부터 370대의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해 양산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신예기 다쏘 미라주 III(Dassault Mirage III)가 도입되는 바람에 ATAR 엔진의 생산수량은 180대로 줄어들었는데, ATAR 엔진의 양산을 가로막은 미라주 전투기가 훗날 ATAR 엔진을 가장 많이 사용한 기체가 될 줄 개발진들은 예상했을까?

✦ ATAR 08, ATAR 09

ATAR 101의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스네크마 사는 새로운 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를 시작했다. 스네크마 사가 개발한

ATAR 08은 전체 설계와 치수, 규격은 ATAR 101과 비슷하지만 9단 압축기와 더 작은 2단 터빈으로 변경되었고, 압축기의 재질은 마그네슘 합금으로 대체하는 등 많은 개량이 이뤄졌다. 1959년 12월 강화된 신형 애프터버너를 탑재한 ATAR 09C형이 완성되었고, 애프터버너 부분을 티타늄으로 바꾼 ATAR 9D는 마하 1.4에서 마하 2로 연속 점화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된 ATAR 8과 9 시리즈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1,000대의 엔진이 에탕다르(Etendard)와 슈퍼 에탕다르(Super Etendard) 공격기를 포함해 미라주 III, 미라주 5와 미라주 F1 전투기, 그리고 미라주 IV 폭격기를 포함한 다양한 항공기에 장착되었다.

✦ 슈퍼 아타(SUPER ATAR)

한편 1955년, 프랑스 정부는 최고 속도 마하 3.0으로 비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네크마 사는 엔진 연구를 시작했다. 고온에서의 운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경합금을 강철로 대체한 M.26 엔진은 1957년 5월에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고 추력 47 KN(10,364 lbf)을 발휘했고, 더욱 강화된 M.28은 1958년 9월의 테스트에서 52 KN(11,466 lbf)의 추력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 작업은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여 추력 85 KN이라는 값을 달성한 SUPER ATAR의 설계에 적용되었다. 이 파생형과 함께 간이 정류익을 포함한 그 선진적인 구조는 훗날 산업계에 널리 소개되었다. 이 계획과 관련되어 시험기인 그리폰 III(Griffon III)가 만들어졌으나,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기 때문에 1960년에 스네크마는 SUPER ATAR의 개발에서 손을 떼었다.

✦ 남겨진 것들

스네크마 아타의 기본 디자인은 이후 크기를 변형시켜 다양한 기체와 시험기에 사용되었다. 오늘날 프랑스의 자존심 라팔 전투기에 탑재된 엔진, 스네크마 M-88 역시 아타 시리즈의 개발과 개량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온 기술이 피드백되어 탄생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AF**



CULTURE

36.5

Hollywood

English



글 · 사진 제공
이미도
(외화번역가,
작가
〈똑똑한 식스팩〉
등 지음)



똑
똑한
식스팩



언피니쉬드 라이프

이번 칼럼은 사진과 관련된 용어로 시작해 봅니다. 먼저 렌즈에 피사체를 담아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지요?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다'는 영어로 'focus'입니다. 초점을 맞추었으면 피사체를 찍어서 담아야 하겠지요? '담다'는 'capture'입니다. 그 다음엔 촬영한 음화 필름(negative)을 현상해야 하겠지요? '현상하다'는 'develop'입니다. 촬영하다는 'shoot' 이고, 장면이나 컷은 'shot' 인 것도 잘 아시죠?

작자 미상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진 용어와 그것들에 들어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활용하고 변주한 문장이지요.

Life is like a camera.

Focus on what's important.

Capture the good times.

Develop from the negatives.

And if things don't work out, take another shot.

인생은 카메라를 닮았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일)에 초점을 맞추고(집중하고),

멋진 순간이나 시절들을 잃거나 놓치지 않고 붙잡으며,

나쁘거나 어려웠던 상황 또는 일을 이겨내고 극복하여 성장합니다.

만약 잘 안 풀릴 때면 우리는 새 장면(shot)을 찍습니다.

즉, 새롭게 시도하거나 또는 도전(shot)합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월간 「공군」의 독자라면 잘 기억하는 명대사, 즉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 1편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입니다' 라는 뜻이지요. 속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자면,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창조자가 우리에게 내린 소중한 선물이니 감사하며 사십시오.' 입니다. 라스 할스트롬 감독의 영화 〈언피니쉬드 라이프 An Unfinished Life〉는 위의 두 메시지와 함께 다음의 메시지까지 아우른 드라마입니다.

"Nobody can go back and start a new beginning, but anyone can start today and make a new ending."

우리는 누구도 과거를 되돌려 '시작을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을 삶 시작해 '새로운 끝을 끝맺을 수' 있습니다.

"저 아이가 네 자식이나?" 수년간 연락이 없던 머느리 진(제니퍼 로페즈)이 어린 딸을 데리고 나타나자, 진을 문전박대하려 했던 아이너(로버트 레드포드)가 그렇게 물어옵니다. 그런데 진이 "아버님의 혈육이기도 해요"라고 대답하자 크게 놀랍니다. 과거에 진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동승했던 아들이 불행하게도 목숨을 잃었고, 그리하여 원수처럼 여겼던 머느리인데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손녀를 이끌고 나타난 것이니까요. 이제, 그들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겠지요?

"Kid sure looks a whole lot like you. Top to bottom."

그리프가 너를 쏙 빼닮았더구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의 묘지에 찾아가는 아이너는 그렇게 손녀의 존재를 알립니다. 기뻐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작은 사고를 계기로 그 기쁨에 금이 생깁니다. "제가 새 접시로 사드릴게요." 진이 부엌에서 접시를 깨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렇게 사과하자 아이너가 격분합니다. "절대 새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원가가 네게 있거나 했었나?" 아들을 잃은 아픔을 그렇게 '돌려차기 질문'으로 공격한 것이지요.

결국 진은 아이너의 집을 떠납니다. 갈 곳이 막막해진 진은 일단 딸과 함께 그녀가 일하는 식당의 주인에게 얹혀살기로 합니다. 생각이 속 깊은 식당의 주인은 진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도 이렇게 충고합니다.

"We're not supposed to outlive our kids. You have to understand that about Einar."

우리 자식보다 오래 살아선 안 돼. 아이너에 대해서도 그 점은 이해해야 돼.

진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아뵘싸, 혈육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리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I'm going back. I'm staying with my grandfather." 그리프는 그러곤 할아버지에게 되돌아갑니다. 그걸 계기로 아이너와 손녀는 부쩍 가까워집니다. 심지어 아이너는 손녀에게 '자동차 운전'도 가르칩니다. 아이너가 진에게 화해의 눈길을 보낼 거라는 암시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에, 그동안 진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던 남자 친구가 도망친 진을 찾아냅니다. 그러자 아이너가 사냥총을 들고 그 악당에게 찾아가합니다. 나머지는 가려둡니다, 스포일러이기에!

"Don't worry about hard times because some of the most beautiful things we have in life come from changes and mistakes."

역경에 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은 변화와 실수를 통해 찾아오는 법입니다.

〈언피니쉬드 라이프〉는 우리를 일깨웁니다. '고통을 이겨낼 때 인간은 더 강해지고, 상실과 아픔을 이겨낼 때 더 지혜로워진다.' 과거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과거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일깨우는 '희망의 등대'인 때문은 아닐까요. '창조자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오늘'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 교훈을 실천할 때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눈 녹듯 녹지 않을까요. **AF**

An Unfinished Life



TREND'S
GOOD!

트렌드가 보인다!

봄바람을 만끽하기도 전에 여름이 오려는지 20도를 웃도는 날씨.
예년보다 빨리 여름 스타일링 준비를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심플한 흰 티셔츠와 청바지 하나에 포인트를 줄만한 유행 아이템을 모셔왔습니다.
휴가를 나선 장병 여러분이 이 아이템 하나만 장착해도 리얼웨이에선 트렌디한 스타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간절기부터 여름까지, 롱런할 스테디 셀러는?

MIRROR SUNGLASS



(좌) 서울패션위크 당시, 소장 밖에서 강렬한 레드 컬러의 미러 렌즈 선글라스를 낀 모델. (©LAPIZ SENSIBLE)

(우) 봄/여름 시즌 디자인을 선보이는 디자이너들도 런웨이와 룩북에서 미러 선글라스를 대거 선보였다. (©AM.WE)

지난 3월 막을 내린 '서울패션위크' 소장 밖 파파라치들이 무성한 스트리트에선 내로라는 멋쟁이들이 앞다투어 선글라스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두툼한 테가 유행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단연코 '미러 선글라스'가 압도적이네요. 미러 렌즈는 렌즈가 거울처럼 코팅된 것을 말하는데요, 형광 컬러의 렌즈가 웬만한 액세서리를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가 압권. 너무 튀는 것 같아 자신이 없다면 렌즈에 블루, 옐로우 등 컬러가 들어간 선글라스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옷은 최대한 단정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스타일에 힘은 빼는 것도 포인트! 특히 이 미러 선글라스는 머리가 짧을수록 잘 어울리니, 휴가철 장병들의 좋은 변신 아이템일 것 같네요!



- 1·2 '나혼자 산다'의 데프콘이 쓰고 나오는 선글라스 브랜드, 젠틀몬스터(GENTLEMONSTER.CO.KR)의 미러 선글라스. 가격대가 합리적인데다 다양한 렌즈 컬러와 프레임이 고르는 재미가 있다.
- 3 할리우드 스타들이 선호하는 독특한 프레임의 일레스테바(ILLESTEVA) 선글라스. 클래식한 수트를 선호한다면 이런 스타일을 골라볼 것!
- 4 왼쪽 아래에 다른 컬러 프레임이 포인트인 더 누메로(THE NUMERO) 선글라스는 산다라박, 지드래곤, 탑이 선호하는 브랜드. 미러 렌즈는 아니지만 컬러 렌즈라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다.

SLIP-ON



슬립온의 오리지널 브랜드로 불리는 VANS의 기본 디자인. (©VANS)

강렬한 미러 선글라스와 함께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는, '슬립온'입니다. 슈즈에 끈이 없고 발목을 감싸지 않는 로우탑이라 신고 벗기에 간편하니 이 계절엔 더 없이 반가운 아이템이죠. <별에서 온 그대>의 도민준처럼 수트팬츠에 스니커즈를 매치하는 센스에 응용해도 좋겠어요. 로퍼 대신, 슬립온을 매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디자인이 단조로운 대신 무늬가 있는 가죽, 송치, 스웨이드 등 다양한 소재와 프린트, 컬러가 다양하니 취향대로 고르면 됩니다. 미러 선글라스처럼, 옷차림은 최대한 심플하게 입어보세요.



- 1 생지 데님 팬츠에 어울리는 올 화이트 슬립온. VANS
- 2·3 스니커즈 브랜드 반스(VANS)와 콜라보레이션한 겐조(KENZO)의 프린트 슬립온.
- 4·5 레오파드 프린트의 송치 소재 슬립온. (좌) SCHUTZ (우) H&M

BEAUTY LAB

여름준비 2탄, 신상 스니커즈

두툼한 운동화는 왠지 여름에 쇼핑하기 꺼려지는 게 사실. 세계절용으로 구비하면 몰라도 여름엔 왠지 더워서 샌들이나 슬립온을 신게 되죠. 현대 다가오는 더위에 대비해서 봄, 여름 가볍게 신을 수 있는 경량 소재로 리뉴얼된 신상 스니커즈들이 눈에 띕니다.

푸마, 2014 브라질 월드컵 기념 '브라질 셀러브레이션 컬렉션'



(©PUMA)

대망의 브라질 월드컵이 코앞이네요. 세계적인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푸마에서 기념 모델이 나왔습니다. 월드컵 컨셉의 패키지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백넘버가 표기되어 있다고 하니 고르는 재미까지 있겠네요!

나이키, '에어맥스 브리드 컬렉션'



(©NIKE)

지난 3월 26일은 나이키의 유명 모델인 '에어맥스'의 25주년이었죠! 여름에도 신고 싶지만 왠지 두툼한 디자인에 꺼려지는 것도 사실. 현대, 기존의 가죽과 스웨이드, 합성 소재를 불필요하게 덧댄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중량을 최소화한 '여름형 커스터마이징' 에어맥스가 출시됐습니다. 이름하야 '에어맥스 브리드 컬렉션'. 사진은 에어맥스 90 브리드(Air Max 90 Breathe)

오니츠카타이거, '멕시코 66 슬립온'



(©Onitsuka Tiger)

많이 낫익은 디자인인데 어딘가 낯선 이것! 오니츠카타이거의 대표 모델인 '멕시코 66'의 진화형 모델입니다. 끈이 없는 대신 밴드를 장착한 슬립온 스타일로 재해석했죠. 이번 대세 아이템으로 꼽힌 기본 슬립온이 너무 맛있다는 장병 여러분에게 좋은 선택이 될 듯! **AF**



글 · 사진 제공
윤미영
(방송작가)



PREVIEW

경제적이고 똑똑한 스릴러

영화 <그랜드 피아노>

5년 전 연주회를 망친 이후 가까스로 복귀한 천재 피아니스트의 무대. 긴장감 넘치는 피아노 선율이 시작됨과 동시에 피아니스트는 알 수 없는 적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된다. “연주를 멈추거나 지시를 어기면 널 죽일 것이다.” 이 섬뜩한 메시지와 함께 피아노 연주는 절정으로 향한다. 피아노를 치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이 독특한 설정의 스릴러는 그 아이디어만으로 관객들에게 지금까지 스릴러와는 전혀 다른 흥미를 유발시킨다. 최소의 출연자와 최소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매우 경제적이며, 영리한 영화라 할 수 있다. 아슬아슬한 생사의 기로에서 절묘하게 긴장감을 더해주는 피아노 선율 역시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거의 마지막 순간 얼굴을 드러낸 범인(영화 대부분은 목소리만 출연한다). 분량은 작아도 존재감은 확실하다.

- 아이디어는 기발하지만 사건을 전개하는 몇몇 장면들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는 것이 사실



제13회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

매년 5월 의정부에서는 ‘음악’과 ‘극’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국제음악극축제”가 펼쳐진다. 벌써 13회를 맞이한 이 축제에는 세계무대에서 검증된 최신허향의 음악극 및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 등 음악과 극이 만나는 참신한 공연예술을 모두 접할 수 있다.

* 기간 : 5월 9일 ~ 5월 18일

* 장소 : 의정부 예술의 전당 및 의정부 시내

추천작 1) 뮤지컬 ‘해를 품은 달’

김수현, 한가인이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를 뮤지컬로 만든 이 작품은 지난해 한국 뮤지컬 대상 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엔 서울 공연의 반값으로 책정됐다고 하니 이 작품에 관심 있던 관객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추천작 2) 매직더스트

3D 멀티미디어 영상과 마임, 그리고 인형극이 음악과 함께 결합된 작품으로 2010~2011년 해외 무대에서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권에 서 최초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글

강명석
(대중문화평론가,
IZE 편집장)



사진출처
어벤져스
페이스북



슈퍼 히어로의 등장

올해 봄 국내 영화계 최고의 이슈는 <어벤져스>였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헐크 등 슈퍼 히어로들이 함께 출연해 큰 성공을 거둔 <어벤져스>에 이은 <어벤져스 2>의 일부를 한국에서 촬영하고, 비슷한 시기에 <캡틴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개봉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어벤져스>와 관련된 소식이 일반 뉴스에까지 등장하게 됐다. 여느 한국 영화들보다 아직 개봉하려면 1년이 더 남은 영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다. 왜 그리 난리법석이나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벤져스>는 국내에서도 9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은 화제작일 뿐만 아니라, <어벤져스>에 이어 개봉한 <아이언맨>은 900만 관객을 넘겼다. <어벤져스 2>의 한국 촬영설 역시 언론사 이전에 <어벤져스>의 팬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번역하며 국내에 알리기도 했다. 그만큼 <어벤져스>와 관련된 슈퍼 히어로들은 국내에서 상당한 팬층을 가졌다. 기존 헐리웃 흥행작들은 작품이 인기 있다고 해서 그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의 인기가 치솟거나, 그 작품에 대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반면 <어벤져스>의 출연 배우들 중 한국에 촬영은 캡틴 아메리카 역의 크리스 에반스는 마치 한국의

인기 아이돌처럼 이른바 '공황직찍'(팬들이 스타가 공항에 온 모습을 찍은 사진)이 돌기까지 한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초능력을 쓰는 서구의 슈퍼 히어로들이 한국에서도 열광적인 팬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은 <어벤져스> 특유의 설정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어벤져스>에 슈퍼 히어로들이 모이기 전까지, 이 작품의 제작사 마블은 <아이언맨>, <토르>, <퍼스트 어벤저>, <인크레더블 헐크> 등 각각의 슈퍼 히어로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들을 만들었다. 이 영화들은 조금씩 다른 작품들과 연관성을 갖고 있고, 영화가 끝난 뒤 등장하는 짧은 영상들에 의해 이 연결고리를 보다 강하게 보여준다. 이를테면 <아이언맨 1>편에서는 훗날 아이언맨이 함께 일하게 되는 조직 쉴드가 등장하고, 2편에서는 <토르>의 내용과 이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연결고리가 등장하면서 각각의 영화들은 하나로 이어지고, 캐릭터들은 영화가 한 편씩 개봉될 때마다 보다 복잡한 설정을 갖게 된다. 그저 각각의 영화에서 활약할 것 같았던 캐릭터들이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언급하고, 한 작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다른 작품에 영향을 준다. 그만큼 마블에서 만드는 영화들을 즐기던 관객들은 관련 작품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은 물론, 이 작품들

을 슈퍼 히어로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로 받아들이는다. <어벤져스>는 그 슈퍼 히어로들이 한꺼번에 모인 빅 이벤트였고, <어벤져스>가 엄청난 흥행을 거두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블이 만든 슈퍼 히어로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어벤져스 2>가 엄청난 관심을 모으는 것은 2008년 <아이언맨> 이후 7년 동안 마블의 영화들이 쌓아 올린 결과다. 물론 이렇듯 아직 <어벤져스>와 관련된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봐야 할 작품들이 너무 많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케이블 TV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벤져스>와 관련된 영화들을 쉴 새 없이 상영한다. <아이언맨 3>를 개봉할 때면 <아이언맨 1>, <아이언맨 2>를 방송하고, <토르 2> 개봉 전에는 <토르 1>이 방영된다. <어벤져스 2>가 방영될 때쯤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마블의 슈퍼 히어로 영화들을 논스톱으로 방영할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모든 작품들을 보기 힘들 것 같다면 <아이언맨 1>, <퍼스트 어벤저>, <토르 1>,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정도만 봐도 흐름을 이해하는데 충분하다. 그러니 한번 즐겨보지 않겠는가. 영화 속의 슈퍼 히어로들이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AF**



OPINION

생각하는
그림



글
중위(진) 정상근
(정훈과)



일러스트
이한아
(일러스트
작가)



돌맹이 수프의 비밀



1

전쟁 중이던 프랑스 어느 마을에 외로이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먹음직한 음식 한 번 구경하지 못한 할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간신히 냄비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로 나가 깨끗한 물과 작은 돌맹이 하나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2



냄비를 끓이며 한참을 앉아있는데 지나가던 소금장수가 할머니를 찾아와 뭘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소금장수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수프를 끓이고 있다네.”

3

소금장수는 수프에 소금을 넣었는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수프에 소금은 넣으셨어요? 아직 안 넣으셨으면 제가 가진 소금을 조금 드릴게요!” 할머니는 소금장수의 제안을 반기며 소금 한 움큼을 냄비에 넣었습니다.



4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추장수가 다가와 할머니의 특별한 수프에 배추를 넣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고기장수도 수프의 맛이 더 깊어질 거라며 자신이 가진 고기 한 덩어리를 내주었습니다.

5

마침내 수프가 완성되었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에게 있는 거라고는 오래된 냄비밖에 없었네. 하지만 현실을 타하는 대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냈지. 덕분에 나 역시 자네들을 만나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지 않았나.” **AF**

6



담벼락

그 열광을 반쯤 잃어버린 「자전거」



아버지의 자전거

봄바람에 찰랑찰랑 머릿결 나부끼며 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제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드넓은 트랙, 안전한 잔디밭, 바깥 아파트 놀이터와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신세계에서 아버지의 손자들은 자유를 맘껏 누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도 자유롭습니다. 어쩌다 시야에 들어오는 아이의 자전거를 쫓다가 젊은 날에 아버지 허리를 끌어안고 자전거 뒷자리에 앉은 아버지 손자만큼 어린 저와 만납니다. 아버지를 무척 따랐던 저는 아버지 자전거 뒤에 앉아 시장도 따라 가고, 병원도 가고, 약수터도 갔었죠. 고등학교 때 지금은 집 앞까지 오는 마을 버스가 생기기 전, 새벽같이 학교를 가야 했고 큰 버스길까지는 너무 어둡고 위험해 출근 전에 태워주시던 아버지의 따뜻한 등이 떠오릅니다. 죄송한 마음에 걸어간다 말씀드리면 아침 운동이라고 웃으시며 날이 길어진 초여름까지 태워주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지난 설에 집에 들렀다가 옥상에 나란히 세워져 있는 아버지의 자전거와 아이의 자전거를 보았습니다. 계단이 많은 집으로 옮겨 가신 후에도 종종 자전거를 타셨는데 이젠 그 자전거에 쌓인 먼지가 보기에 조금 애잔합니다. 아이 타라고 두신 자전거는 갈 때마다 닦아 두시는데 아버지의 자전거는 주인을 태운 기억이 아득하겠어요. 이젠 자전거보다 승용차를 더 애용하시니 편해지시긴 했지만 그 자동차에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시던 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디스크 수술 누구나 하는 것이고 걷는데 무리 없다 하셔도 보기에 안쓰러운 아버지의 무릎과 허리통증으로 그 좋아하시던 손자들과의 산책도 선뜻 나서지 못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자주 오지 말아야지 다짐하곤 했었죠. 부모님 힘드시니까봐 자주 못 간다고 하면 언니는 그럴수록 애들 자주 보여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했어요. '언니네 손님 아니니까 그런 소리한다' 하면, 나이 드는 자식보다 손자 보시는 낙이 더 크다는 아버지 말씀에 용기내서 가곤 하는데 그래도 갈 때마다 전과 달리 누워 계시는 모습에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아요.

자전거 타기는 한 번 배우면 평생 안 잊는다고 잡아 주시던 그날의 바람을 기억합니다. 모든 주위가 제 뒤로 물러나면서 끝도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 같았죠. 그런 날들을 늘 한 발 뒤에서 지켜봐 주신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을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오로지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들의 길을 지키는 엄마가 되도록 오래도록 지켜봐 주세요. 지금처럼만. 5월에 가면 안 타셔도 제가 아버지 자전거 깨끗이 닦아 드릴게요. 사랑해요.



제11전투비행단 송진우 원사 가족 장경자



오래된 자전거 가게

내가 사는 동네(구미시 신평동)에는 오래된 자전거 가게가 하나 있다. 원래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세월을 따라 리모델링을 하여 지금은 깔끔한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그런 세련된 장소에 왠지 어울리지 않는 도깨비 같은 할아버지가 가게 깊숙한 곳에 앉아 계신다. 할아버지는 진짜배기 자전거 장인이다.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합기도 도장을 다녔다. 합기도 도장은 자전거 방 근처에 있었는데 유난히도 그 주변에 자전거 도둑이 많았다. 하루는 합기도 도장 입구에 자전거를 세워놓았는데 운동을 마치고 나오니 없어졌다. 덜컥 겁이 났다. 분명 자전거는 비싼텐데 부모님께 뭐라고 말하지 하고, 집에 가서 울며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자전거를 찾으러 나갔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혹시나 싶어서 자전거 가게에 가보았는데 도깨비 할아버지가 내 자전거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자전거 의자 아래에 이름을 적어놓았는데 훔친 녀석이 그것도 모르고 도깨비 할아버지한테 자전거가 어떤지 봐달라고 하다가 ‘딱’ 걸린 것이었다. 네 것이 맞냐고 물어보니 그 녀석은 뱅크 도망쳤다고 한다. 참 고마웠었다. 나중에 두어 번 더 물어보려서 결국엔 되찾지 못한 셈이나 마찬가지로지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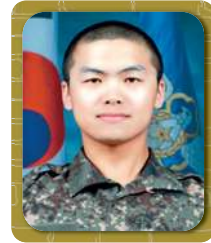
그리고 나서 17년 후, 이번에는 집근처에서 직장을 구해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자전거의 앞 바퀴랑 충격완화장치가 크게 찢그러졌다. 늘 그랬듯이 할아버지네로 향했다. 이리저리 만지고 돌려보시더니 통명스레, “이거랑 같은 건 여기 없고, 음, 일단 자전거 놔두고 가봐.”라고 하셨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가면 자전거 가게. 자전거에는 색깔은 다르지만 꼭 맞는 바퀴와 충격완화장치가 달려 있었다.

“토요일에 대구가서 다 돌아봤는데 같은 제품이 없어서 요걸로 맞춰어. 그래도 괜찮을거야.” 괜스레 찡했다. 내 자전거 한 대 때문에 대구까지 가신 걸까. 기름값도 들고 귀찮기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나 같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할아버지는 진짜배기 자전거 장인이라서 자전거 바퀴에 난 바람구멍도 늘어진 체인도 똑딱 순식간에 고쳐 주신다. 게다가 말수는 적지만 아픈 자전거를 걱정하는 자전거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다. 우리 동네에서 동장이라도 뽑는다면 나는 이 분께 물표를 드릴 작정이다.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있어주어 고마운 사람은 친구나 가족만이 아니었다. 휴가 때 줄어들었을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으려, 할아버지의 짧은 말을 들으려 가야겠다.

방공포병학교 일병 최신영



아낌없이 주는 자전거

넓고 넓은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자전거는 유일무이한 이동 수단이다. 특히 라인 안쪽에서 근무한다면 그 소중함에 대해 더욱 잘 알 것이다. 동서남북 쪽쪽 뽀는 비행단에서 자전거는 제2의 발이나 다름없다. 처음 근무장에 전입왔을 때 4대의 자전거가 있었다. 내가 처음 타게 된 높은 바구니가 달린 하늘색 자전거였는데 선임은 병장보다 높은 ‘짬’의 자전거라고 소개했다. 나는 경외의 눈빛으로 자전거를 바라봤다.

자전거가 늘 고맙지만 한 존재였던 것은 아니다. 녹(綠)발이 성성한 자전거들은 하루가 멀다고 고장이 났다. 그걸 수리하려면 대대까지 망가진 자전거를 끌고 가야했는데 안 좋게 고장나면 들고 가야 할 때도 있었다. 이런 수리는 막내였던 내 할일이였다. 한 번은 한 달 동안 자전거 3대가 순차적으로 펑크가 났는데 너무 열 받은 나머지 휴가 때 내 돈으로 직접 타이어 튜브를 사온 ‘웃픈’(웃기지만 슬픈) 기억도 있다.

이렇게 고된 순례의 길을 반복하던 나는 선임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결국 직접 수리를 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왕고는 옛날 옛적에는 각 샵에서 수리를 하고 심지어 망가져서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해 병사들에게 싼값에 팔았다고 했다. 지금이라 못할까 생각했던 우리는 반장님께 건의해 자전거 수리 키트를 하나 구했다. 물론 키트라고 해봤자 고무 패드와 본드 사포가 전부였지만 의욕이 넘치던 우리는 신이 나서 수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실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되었다. 지금은 15분 정도면 펑크는 똑딱 고치는 수준에 이르렀다.

얼마 전 이렇게 고치고 고쳐 쓰다가 결국 수명을 다한 자전거를 폐기 처분했다. 트럭에 실어 보관소로 보낼 때에는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마치 전우를 떠나보내는 느낌마저 들었다. 내 다리를 대신해 달려주고, 사회에선 상상도 못할 자전거 수리 기술까지 얻게 해준 이 자전거는 내 군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전우로 기억될 것 같다. 자전거야, 고마워.

제1전투비행단 병장 양익순



※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호 공모 주제는 ‘축구’입니다.



글
대령 강성구
(공군본부
정훈과장)



책마을



조선시대 임금 27명의 평균 수명은 46세라고 합니다. 태조와 영조 등 일부 임금들이 환갑을 넘기긴 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50세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초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였을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략 35세 이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유럽에서 산업화가 시작되던 1800년 무렵의 평균 수명이 35세 안팎이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유추한 결과입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강산이 네 번 바뀌는 것을 보는 것도 힘들었다는 이야기지요.

조선 최고의 지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다산 정약용이 1801년 신유사화에 연루되어 귀양을 떠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40세가 되던 해입니다. 셋째형 약종은 참형을 당해 죽고 둘째형 약전과 자신은 기약 없는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그 기간이 18년이나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5세 언저리일 때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전남 강진)에서 보낸 정약용은 어떻게 그 참담한 기간을 견디어 냈을까요. 실낱같은 복권의 희망이 정적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무산되면서 그가 가졌을 분노와 좌절은 쉽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절망을 에너지 삼아 학문에 전념하여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깁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그 18년간 정약용이 식구들과 제자,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은 것입니다. 엘리트 관료집안의 귀공자에서 죄인의 아들이 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글 위주로 구성되었는데 시대를 뛰어 넘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학자가 아닌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모습에서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 노릇이 제일 힘든 일임을 알게 해줍니다.

자식들을 편지로만 훈도해야 하는 정약용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들을 향해 종종 왕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평민으로서 배우지 않으면 못난 사람이 되고 말지만 폐족(조상이 죄를 지어 그 자손이 벼슬을 못하는 집안)으로서 배우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도리에 어긋나 비천하고 더러운 신분으로 타락하게 된다. 아무도 가깝게 지내려 하지 않아 결국 세상의 버림을 받게 되고 혼인길마저 막혀 천한 집안과 결혼하게 되며, 물고기의 입술이나 강아지의 이마 물결을 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집안은 영영 끝장나는 것이다.” 비록 선대의 잘못으로 몰락한 집안이 되었으나 자식들이 학문을 등한시하는 꼴은 도저히 봐줄 수 없다는 아버지의 강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 이외에도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데, 비록 집안이 빈궁하여 닭을 직접 키우게 되었더라도 사대부 집안답게 키워야 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닭들의 색깔을 나누어도 길러보고 닭이 앓는 해를 다르게도 만들어 보면서 다른 집보다 더 살찌고 더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비루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직계 8대가 연속으로 문신(文臣)의 꽃으로 일컬어지는 홍문관을 배출한 집안답게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프라이드가 엿보입니다.

전보도 이메일도 전화도 없던 시절 오직 가끔씩 오가는 인편에 편지를 보내 자식들에게 가풍을 전수하고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하고자 했던 아버지 정약용. 술을 제대로 즐기며 마시는 법에서부터 좋은 친구를 선별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애뜻한 부정이 묻어나는 편지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아버지들을 다시 한 번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5월은 가정의 달이네요. **AF**

Vol.431

정답엽서 마감일 : 5월 31일까지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 321-929



2014
May
Vol.431



백일장 열여덟 번째 주제 축구

* 독자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립니다.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 글, 그림, 출연

인트라넷(E-mail) leedh63@af.mil
인 터 넷(E-mail) afpaper@naver.com
전화번호 042-552-6943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ㅁㅁ이다.

◎ 월간 「공군」 5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5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독자퀴즈 정답자 중 5명을 추첨해
멀티비타민 '네이처 밸런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